



문서번호 : 17-6-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2

수 신 : 각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제 목 :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 집단
입국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장 면담 신청

전송일자 : 2017. 6. 19.(월)

전송매수 : 총 6 매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 집단입국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장 면담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7.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 이후 북한 제재로 인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선전하였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는 불과 5일 앞으로 다가 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현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기획한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북한에서는 국정원에서 벌인 유인·납치극 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위 종업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한 이산가족상봉 등 어떠한 형태의 인도적 협력도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3. 위 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문제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단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

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칭화대 교수를 통해 위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신변과 안위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수령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들을 접견하고 안위 등을 확인하는 것만이 이 문제로 인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보기에, 위 변호사들은 오늘 자로 국정원장 앞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였고, 국정원 대변인실의 전자우편으로도 위 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변호사들은 위 면담신청에 따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에서도 이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 : 국가정보원장 면담신청서

2017. 6.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국가정보원장 면담신청서

면담신청인 : 변호사 천낙봉 외 11명

면담사안 : 2016. 4. 7.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관한 건

1.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면담신청인들은 변호사들로서, 통일부가 지난 해 4. 8.경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하였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고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총 6차례 방문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의하여 모두 접견 거부당한 바 있었습니다.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선언 이후 북한 제재로 인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선전하였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는 불과 5일 앞으로 다가 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현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국정원이 사전 기획한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가족들은 ‘딸들이 돌아 올 수 있도록 인도적 견지에서 도와 달라’ 는 취지로 UN에 진정하였고, 북한 당국은 국정원에서 벌인 유인·납치극 이라고 주장해 왔는 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위 종업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산가족상봉 등 어떠한 형태의 인도적 협력도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면담신청인들은 위 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문제들이 제대로 해소되고 정리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단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

제이기 때문입니다.

3. 국정원장께서는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현재 위 종업원들이 현재 북한이 탈주민보호센터를 퇴소하고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보고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장이 정착지원을 끝낸 후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 종업원들이 위 이송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위 법률은 사회로 나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취업보호’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통일부장관이 이들에 대해 실시한 교육이나 보호는 전혀 없었습니다. ‘거주지 신변보호’도 통상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지만, 위 종업원들에 관한 한 그러한 업무가 경찰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위 종업원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국정원에 의하여 수용·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4. 면담신청인들은 지난 해 5. 19.경 및 6. 9.경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칭화대 교수를 통하여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위 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위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면담신청인들이 위 종업원들을 접견하고 안위 등을 확인하는 것만이 이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한 모든 의혹 제기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면담신청인들의 위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접견을 적극 권해야 하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면담신청인들은 위 종업원들과의 접견 등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아니 될 현안에 대하여,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그나마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이번 신임 국정원장님과의 면담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017. 6. 19.

면담신청인

변호사 천낙봉

변호사 장경욱

이상,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법무법인 상록

대표전화 02-3482-3348, 팩스 02-3482-4477

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남성욱

변호사 오민애

이상,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14, 6층(서초동, 일괄빌딩)

법무법인 향법

대표전화 02-582-0606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자연

이상,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3길 5, 6층(신사동)

법무법인 양재

대표전화 02-6925-2222

변호사 양승봉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4, 6층(서초동, 신정빌딩)

법무법인 율

대표전화 02-523-9904

변호사 설창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6, 601호(서초동, 경원빌딩)

대표전화 02-521-8119

변호사 신윤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대표전화 02-6203-1020

변호사 채희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504호 (장항동, 로스텔)

법무법인 현재

대표전화 031-932-6700, 팩스 031-932-6711

끝.